

## OC 부활절 연합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 회(회장 박상목 목사, 이하 OC교회)가 주최한 OC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주일 새벽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코비드 펜데믹으로 인해 취소됐다가 방역 조치 완화로 2년 만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감격이 컸다.

박상목 목사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 산 소망이 된다”며 “코로나 펜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상처받고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고통 받는 이웃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자”고 당부했다.



2021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인도하는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상목 목사

예배는 박상목 목사의 사회로 황치훈 장로(OC 장로협의회 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미기홍 회장 민승기 목사가 했다.

민승기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찾아오셨다. 갈릴리는 주님과 그의 첫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이자 믿음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 흩어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자리였다”며 “부활 주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셨던 갈릴리의 예수님을 만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합심 기도가 이어졌다. 예배 참석자들은 △북미주 한인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미국의 영적 부흥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한국의 영적 부흥과 사회적 안정 △2세 사역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기도했으며, 임창수 목사(캘리포니아 신학교 학감), 이호우 목사(OC교회 이사장), 추석근 목사(OC교회 총무), 서동민 목사(OC교회 2세 사역 분과장), 주성철 목사(OC 교회 서기)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김동욱 기자

## 미국인 종교인구 50% 이하...80년 만에 최저치

최근 미국 갤럽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종교활동이 계속 감소했고, 지난해 8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193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갤럽은 매년 두 차례 '미국인의 종교적 태도와 관행'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에서 2020년 미국인의 47%만이 “교회, 회당 또는 모스크에 속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1999년 70%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갤럽이 1937년 처음 조사할 당시에, 미국의 교회 회원은 73%에 육박하다가 이후 60년간 70% 가까이 유지되었고, 21세기에 접어들어 꾸준히 감소했다.

이 같은 교회 회원의 감소에 대해 갤럽은 주로 종교가 없는 미국인들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미국인 비율은 1998-2000년 8%에서 2008-2010년 13%, 최근 3년 동안 21%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종교가 없는 미국인 중 교회나 회당, 모스크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은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10%인 반면, 최근 3년에는 4%로 낮아졌다.

나머지 감소의 요인은 종교적 선호도를 가진 미국인들 사이에서 교회 회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갤럽은 설명했다. 종교성을 가진 미국인들 중 ‘교회, 회당, 또는 모스크에 속한’ 비율은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73%였으나, 지난 3년간 평균 60%로 감소했다.

연령대 별로, 1946년 이전에 태어난 미국 성인의 66%가 교회에 속해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58%, X세대 50%, 밀레니얼 세대 36%가 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교회 회원의 감소가 노인 세대(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가 젊은 세대(가능성이 낮음)로 대체되고 있는 인구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수십 년간, 교회 회원 비율

은 X세대와 Z세대가 베이비붐, 밀레니얼 세대보다 30% 이상 낮기 때문에 회원 수 감소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은 밀레니얼 세대에서도 지난 10년간 15% 감소했다.

종교가 없는 미국인의 비율은 20년 동안 전통주의자 세대(4%~7%), 베이비붐 세대(7%~13%), X세대(11%~20%)로 종교에 상관없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현재 밀레니얼 세대의 31%가 종교가 없으며, 이는 10년 전 22%보다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성인이 된 Z세대 중 33%는 종교적인 선호가 없다고 답했다.

교회 회원의 감소는 정치 보수

파, 공화당원, 기혼 성인, 대졸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그룹은 미국 남부 거주자 및 비히스패닉계 흑인 성인과 함께 교회 회원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지난 20년간 미국 동부 거주자,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교회 회원의 감소는 더욱 컸으며, 정치적 독립주의자들은 민주당원에 비해 교회 가입률이 낮았다.

이에 대해 갤럽은 미국 보수층에서 교회 회원 감소가 다른 그룹에 비해 완만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이들 중 교회에 다니고 있는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 51%, X세대 64%인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70%, 전통주의자의 71%로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단 세력, 팬데믹에도 영향력 넓히고 있어”

미이연 한선희 목사 이단대책 세미나 개최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한선희 목사는 주안예교회(담임 최혁 목사)에서 오는 7일(수)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4회에 걸쳐 줌으로 이단 대책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이단의 정의와 계보를 해부하고 특별히 미주 지역 한인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신천지의 교리와 전도방법 등을 낱알이 밝힐 예정이다.

세미나 주제는 △비교종교 △한국의 종교심성 △기독교 이단의 개념 △이단의 특성 △이단 분별의 기준 △이단계보 △이단에 끌리는 요인 △이단의 변성이유 △이단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 △이단에 예방하는 길 △회개자에 대한 자세 △신천지 이만희 등이다.

한선희 목사는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이 미주 지역에서 더욱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이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통 교회를 보호

**이단의 이해 & 신천지 세미나**

#일시 : 2021년 4월 7일(수) 7:30pm  
4월 14일(수) 7:30pm  
4월 21일(수) 7:30pm  
4월 28일(수) 7:30pm

#장소 : 주안예교회 (최혁 목사 시무)

#방법 : zoom

**강사 한선희 목사**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미주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세이언스임위원회 대외위원장  
세계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장  
예장미주합동총회이대위원장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818-363-5887 주안에 교회

## KAPC 제45회 정기총회 5월 18일 개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조문휘 목사, 이하 KAPC) 제45회 정기총회가 “하나님이 기억한 시대의 영웅(A generation's hero forever remembered by God, 삼하 11:6-17) 이란 주제로 5월 18일(화) 오후 4시(미 서부시간)부터 19일(수)까지 세계소망교회(담임 오세훈 목사)에서 줌을 통한 하이브리드식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조문휘 목사

총회 등록비는 50달러이며, 각 노회 공로, 원로목사는 50% 할인한 25달러에 등록할 수 있다. 총회 파송 선교사는 무료다. 또한 영어 노회 총대를 위해 동시 통역이 자막으

로 준비된다. 총회 관련 문은 총무 김성일 목사 (760)220-3263으로 하면 된다.

## 기쁜우리교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현장예배에 참석해 즐거워하는 기쁜우리교회 성도들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LA 카운티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예배당을 개방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부활절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렸다.

김경진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 서 말씀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길 원한다”면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LA 한인가정상담소, 북가주 저소득층·서류미비 한인들 위한 무료 상담 개시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엄 소장

LA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캐서린 엄)가 무료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북가주 지역으로 넓힌다.

상담소는 심리상담이 필요하지만 지역적,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들을 위

해 북가주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인 AACI 와 협조를 통해 화상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 지역 확대는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KACF-SF·이사장 페리 하)의 지원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프로젝트명은 KITE (Korean Integrated Telehealth Experience)이다. 해당 서비스는 서류미비자나 무보험자, 저소득층의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북가주 한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KACF-SF의 리나 박 사무총장은 “LA 한인가정상담소와 AACI의 파트너십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심리상담에 대한 편견이나 비용에 제약 없이 원격으로 한국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베이지역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LA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엄

소장은 “실제로 심리상담이 필요하지만 언어적 제약이나, 체류 신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었던 북가주 한인들이 대상이다”며 “이번 KACF-SF 그랜트를 통해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관련 정보는 AACI (www.aaci.org) 북가주 연락처 408-975-2730 #180 혹은 한인가정상담소 213-389-67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A 한인가정상담소는 1983년 창립한 비영리단체로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며 심리상담을 비롯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위탁가정 프로젝트, 어린이 영양 보조 프로그램, 커뮤니티 교육 등을 이어오고 있다.

LA한인타운 6가와 허버드 교차로 KOA빌딩 3층에 위치해 있다. 문의 전화는 213-389-6755, 가정폭력 24시간 핫라인: 888-979-3800, www.kfamla.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 故 손인식 목사 1주기 추모예배 “사랑과 믿음의 유산 이어 갈 것!”

전 UTD-KCC(그날까지 선교연합) 국제 대표였던 손인식 목사 1주기 추모예배가 지난달 28일, 고인이 담임했던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진행됐다.

추모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한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예배는 김인식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최정원씨의 특별찬양 후 김한요 목사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한요 목사는 “고 손인식 목사님께서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모든 삶을 바치셨다”고 회고하며 “이제는 고 손인식 목사님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자”고 권면했다.

추도사를 전한 송정명 목사는 “고 손인식 목사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베델한인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신실한 목회자였다. 그리고 북한 영혼들을 사랑했던 탈북자들의 대부였고,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통일 선교사였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철저히라고 외치며 북한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분의 믿음과 사랑의 삶을 따라 살자”고 전했다.

이어서 영상으로 추도사를 전한



故 손인식 목사 1주기 추모예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고 손인식 목사님과 함께한 지난 30여 년은 목회 동역의 관계를 넘어, 마음을 터놓는 동지이자 인생의 조인자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시간이었다”며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늘 기억하며 고인이 남겨주신 복음 전파와 남북 통일의 사명, 이민교회를 향한 부흥의 사명을 이어가자”고 전했다.

새터교회 강철호 목사는 “북한 동포들과 탈북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고 손인식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많은 탈북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

었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통일의 그날, 목사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헌신을 북한 동포들과 나누며 북한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 손인식 목사는 황해도 곡산에서 월남한 손원국 장로, 김화비 권사의 차남으로 1948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재학 중 군 복무를 마친 후 1973년 워싱턴 DC로 도미했다.

그는 1977년 부활절 아침에 중생의 체험을 한 후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며 스승과 제자로 만난 김상

복 목사의 영향을 받아 목회자의 삶을 시작했다. 고 손인식 목사는 워

싱턴 바이블 칼리지와 캐리탈 바이블 세미나를 졸업하고 1990년, 42세의 나이로 베델한인교회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2013년까지 23년 동안 목회하며 남가주의 대표적인 한인 대형교회 가운데 하나로 성장시켰다.

손 목사는 은퇴 후에도 미국, 한국, 유럽을 오가며 북한 동포를 위한 복음화 사역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특별히 북한 자유를 위한 북한포럼과 통국기도회, 탈북자 강제 복송 반대 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탈북자와 북한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탈북자 강제 복송을 반대하는 등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2019년 11월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투병하였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3월 28일 향년 72세로 별세했다.

김동욱 기자



탈북 인권과 북한 자유화에 앞장섰던 고 손인식 목사

## 윤임상 교수, 국제 오페라 성악경연대회 심사위원 맡아

지난해 이태리 국제오케스트라 심사에 이어 올해 크로아티아 오페라 성악 국제 심사위원으로 활동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가 지난달 28일, 유럽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오페라 성악 경연대회(Boris Martinovich Voice Competition)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윤임상 교수는 8명의 심사위원 중 유일한 아시아인이었으며 미국에서 선정된 2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윤 교수의 심사위원 선정은 전세계 한인 음악계의 경사다.

8명의 심사위원 중 미국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유럽 이태리, 불가리아 등지에서 지휘자, 오페라 디렉터로 활약하는 저명 음악인들로 이번 심사에 참여했다.

국제 오페라 경연대회는 세계적인 베이스 바리톤 보리스 마티노비치(Boris Martinovich)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 성악 경연대회로 세계 16개 나라에서 27명이 결선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윤 교수는 “국제 오페라 성악 경연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며 “더 많은 한인 음악인들이 세계 무대에

서 활동하기를 소망하며, 차세대 한인 음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교수는 지난해 11월에는 이태리 세니움 유니버시티(Sam-nium University)에서 열린 국제 오케스트라 수상 경연대회(International Orchestra Awards)에서도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외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Cutlaw

굶주림  
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목사(성신대 영예교수)  
이종희교수(예스대 대표), 송정명목사(복음원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대 대표), 신정원목사(복음원대 대표),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판권자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필 ‘빛은 그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파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연결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북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를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력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 부흥성회

4월 22일(목) ~ 4월 25일(주일)

주제: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이다.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 자세한 문의는 주님의영광교회 행정실(213-749-450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날** 4월 22일(목) 7:30pm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시 40:17)

**셋째날** 4월 24일(토) 7:30pm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히 6:4)

**둘째날** 4월 23일(금) 7:30pm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고전 1:18)

**넷째날** 4월 25일(주일) 8:00am, 10:30am, 1:00pm  
**환난의 강을 건너라** (시 50:15)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01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의 21회 졸업식을 마치고”

지난 4월 3일 본교의 21회 졸업식이 있었다. 코로나의 재확진으로 1개월 앞당겨 한 것이다.

1. 11명의 졸업생이 각자의 사역지로 파송 받는 날이기도 했다. 필자는 한 달 전 졸업 논문 심사 때를 회상했다. 2분의 선교사와 4분의 현지 교수들이 심사했다. 11명 모두 논문의 주제가 달라서 좋았다. 목회자로서, 음악 지도자로서, 선교 희망자로서 그들은 자기들의 앞으로의 사역 계획까지도 매우 진지하고 명확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수들 모두 대견스러워했다.

2. 코로나로 대부분 주저하는 때에 미주에서 장현태 목사님(남가주 임마누엘교회)이 설교로, 김요셉 목사님(L.A.성광교회)이 축사로 졸업식을 빛내주어 너무도 감사했다. 오시진 못했지만 점심식사를 제공하신 팔로마 한인교회(서명성 목사님)와 토랜스 조은교회(김우준 목사님, 율타리선교회(나주옥 선교사님) 등 우리의 선교에 늘 동역해 주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계심을 항상 감사한다.

3. 졸업생 포함한 재학생들의 수고가 눈물 나게 고맷다. 졸업식을 위한 학교 안팎을 단장하는데 열심을 다했다. 한 달 앞당겨진 교과 과정을 맞추느라 하루 3교시(아간까지)의 수업 스케줄을 다 마치고 또 주말을 이용하여 단장하고, 또 시간 사이사이 성가대 찬양 연습과 찬양팀의 연습, 그리고 졸업식의 명물인 '마리아치' 연습까지 우리 학생들의 헌신과 수고는 정말로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모자랄 것 같다. 학생들은 성가대 전 곡을 무악보로 완창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곡을 수없이 반복 연습하였다. 특히 한국어로 "주님 내가 여기 있소니 나를 보내소서"를 부를 때는 한국인으로서의 전율과 감동이 북받쳐 올랐다.

4. 피닉스 순복음교회는 히스패닉 교회이다. 지난 22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교우들이 10여 명씩 졸업식 전날 온다. 전교생 저녁 식사와 함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다. 올해 80세가 되신 호세 장로님이 팀장이 되어서 온다. 필자의 교회도 20년간 이곳을 후원하며 자주 만남을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가져 정말 한 공동체처럼 가까운 교우들이다. 그들은 한인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렇게 훌륭한 학교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해한다. 그들은 이번 성탄절에 보자 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그 교회는 중요한 신학교의 큰 행사에 마음을 같이한다.

5. 졸업식의 훈훈한 모습 중 하나는 선배 동문들이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모이는 것이다. 그들의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봉투에 넣어 졸업생들의 여비로 선물한다. 재학생들에게도 선물을 나누다. 그들이 오면 기숙사 방마다 더욱 웃음꽃이 핀다. 졸업생 중에는 우리 학교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들이 여러 쌍 된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 물론 중매료는 무료였다. 이번에는 치아파스에서 온 부부가 1살 된 아들이 데리고 왔다. 졸업식 전에 첫 돌 잔치를 먼저 했다. 전교생과 동문들 스태프 및 선교사들까지 다 모여서 저녁과 케이크, 마리아치의 축하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 졸업식은 파송식을 병행한다. 졸업한 그날 저녁 졸업생들과 재학생 중 몇 명이 사역지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학생들은 얼굴이 붉어진다. 자매들은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서로 부둥켜안으며 9월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한다. 3일간 쉽없이 가는 버스에 올라타는 아이들을 보내며 가슴 한복판이 아려왔다.

“주님! 저들을 보살펴 주세요” 고향으로 가면 당장 부모를 도와 일터로 나갈 아이들 모습에 마음이 먹먹해 지지만 한 권 그들에게 대한 소망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다.

###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⑫ “갈라디아 교회들”

바울은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복음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거짓 선생들은 행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바른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갈라디아 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유대교 율법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교회 상황을 듣고 문제의 해결책으로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설명합니다. 죄의 형벌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 (Magna Charta of Christian Liberty)”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함(5:16)으로 성령의 열매(5:22)를 맺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또 자유 활용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5:13)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수신자 문제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지는 어디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며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신약 신학 학자들은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수신자들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터키에 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리들을 연구하는 마크 윌슨(Mark Wilson)박사는 자신의 저서 “Biblical Turkey”에서 AD 1세기에 갈라디아라 부르는 곳이 두 곳이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북부지역에 원래 갈라디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행정 구역을 개편하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면서 갈라디아주를 남쪽에 두었습니다. 바울이 1차 여행 후반기에 거쳐 간 도시들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등이 갈라디아주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북 갈라디아설은 소아시아 북부의 원래의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가 보내진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들은 갈3:1의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꾸짖는 말이 켈트족을 일컫는다는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6, 18:23에 언급된 갈라디아를 북쪽 갈라디아라고 봅니다. 교부들,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북 갈라디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가 소아시아 북부에 있던 고을족 또는 켈트족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 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북 갈라디아설 주장자 라이프루트 박사는 ‘갈라디아’는 ‘정치적 의미가 아닌 인종적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를 쓰기 전인 3차 전도여행중인 주후 57-58년경 마케도냐 아가야에서 썼다고 합니다. 제임스 포켓은 북갈라디아설을 주장하지만 저작 시기는 갈라디아서 1:6에 근거하여 좀더 이른 53년경으로 봅니다.

남 갈라디아설은 소아시아 남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장점은 사도행전 흐름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반면 갈라디아서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데베 그리고 이고니온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남 갈라디아설은 사도행전 16:6과 18:23에 언급된 갈라디아를 남쪽의 갈라디아로 봅니다.

영국 성서 고고학자인 윌리엄

램지(William Ramesy)는 바울의 선교지를 방문하여 연구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방문한 기록된 도시들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지역이 갈라디아서 수신지라고 주장합니다. 안디옥 6세가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을 이주하였던 것을 환기시키면서 갈라디아가 율법주의자들을 위한 편지였음을 주장합니다.

윌리엄 램지 그리고 F.F.브루스 등 영국 복음주의 진영은 남 갈라디아설을 따릅니다. 필자도 남 갈라디아가 수신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가 예루살렘 공회(행15장)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믿고, 북 갈라디아설은 예루살렘 공회후 2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디아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남 갈라디아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요세푸스의 주장대로 바벨론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의 강한 정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바벨론 생활에도 유대인들은 구약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이주하자마자 회당을 짓고 율법을 고수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예수를 믿었지만 구약의 율법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행14:19)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딤후 4:11).”라며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다니 종노릇하느냐(갈4:9)?’고 도전합니다. 그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4:19)”라며 온갖 고난을 다시 겪더라도 바른 신앙인을 세우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눈부신 바울의 열정이 보입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해리 리더와 팀 켈러 목사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을까?

## 교회의 부흥, 교회성장론과 목회성공에의 재인식(7)

많은 교회마다 부흥시킨 해리 리더 목사

해리 리더 목사 (Dr. Harry L. Reeder III)의 목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그를 여러 차례 만났는데,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나, 신학교에서나 항상 중후한 신뢰감을 주는 분이였다. 현재 앨라배마 주, 버밍햄에 있는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 (Briarwood Presbyterian Church in Birmingham, Alabama)의 담임 목사로 이십여 년을 섬기고 있다. 해리 리더는 동부 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재학 중에 아내 신디를 만난 후 1969년에 결혼했다. 자신의 공부는 접어두고, 화학을 전공한 아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움을 주었다. 다시 자신의 대학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학교에 돌아간 후, 목회에 소명을 받아서 커번넛 대학에 편입하여 역사와 성경을 전공하고 1974년에 졸업했다. 학교 근처의 차타누가 지역에서 독립교회를 6년 동안 섬겼고, 테네시 템플 신학교에서 틸튼이 공부도 했다. 그 후 신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플로리다 신학 센터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마쳤다. 그가 공부하면서 2년 반 동안 섬긴 파인랜드 장로교회 (Pinelands Presbyterian Church)는 50 명에서 400명으로 성장했다. 그의 사역의 핵심은 그의 설교와 성경공부, 소규모 제자훈련 등으로 결속시켰다는 점이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1983년 2월, 38명으로 시작된 “크라이스트 커번넛 장로교회”에 초대 설립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는데, 7년 후에는 3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다양한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작동하였다. 노인층을 위해서 버스를 매일 운행하는 복지사역에도 힘썼다. 또한 이때부터 리더 목사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10분 설교”와 1분 삽입 방송을 내보냈다. 그는 집중적으로 기독교 남자 신자들의 지도력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자신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교회의 재활성화를 위한 사역을 개발해서, “잔불이 불꽃처럼 타오르도록” (Embers to a Flame)이라는 세미나를 매년 국내 외적으로 개최했다. 이런 내용으로 리폼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가을에 앨라배마 버밍햄에 있는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 (Briarwood Presbyterian Church)에 청빙을 받아서 지금까지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고, 자신의 교회에 세워진 버밍햄 신학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설교하는 팀 켈러 목사

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미국 남부 정통 보수주의 신학의 맥을 잇고 있는 이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 (P.C.A.) 교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 초대 설립자 프랭크 바커 목사 (Frank M. Barker, Jr.)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였다. 바커 목사는 사십여 년 목회하면서 대형교회로 성장하도록 하였고, 그의 인품과 성실함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목회자였다. 대형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신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버밍햄 신학교에서 강의 한 적이 있었는데, 목회역량을 강화해서 선교하려는 목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지금은 약 4천 1백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회중들 가운데는 한국인들의 소그룹이 있고, 일본인들 모임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제자와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핵심 가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중점 사항의 첫 단어를 모으면,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웰” (좋은,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토요일 아침 일찍 기도 모임이 있고, 교회에서 다양한 양육 강좌가 개설된다. 저명한 기독교인 교수들의 교양강좌가 많이 개설된다. 이 교회의 목표는 “건강한 (W.E.L.L.)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i) 예배 (Worship):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ii) 전도 (Evangelism): 우리의 사역은 세계를 향해서 전파하는 것이다. iii) 사랑 (Love): 우리의 사역은 서로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iv) 배움 (Learning): 우리의 사역은 자신들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 맨해튼의 개척자, 티모티 켈러 목사

팀 켈러는 금세기 최고의 통찰력을 제시하는 설교자로 정평이 났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줄로 안다. 필자는 가장 어려운 대도시 개척 목회를 감당한 최고의 개척자가 뉴욕 리디머 (Redeemer) 장로교회의 티모티 켈러 목사라고 확신한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의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미국장로교회 (P.C.A.) 교단 본부에서 맨해튼으로 옮겨가서 개척교회를 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였다. 뉴욕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미 두 명이나 거절했던 사역을 별로 목회경험도 없는 그가 맡게 되었던 것이다. 1989년에 시작한 개척교회는 5천여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으며, 그의 퇴임과 함께 네 개의 맨해튼 내의 지역 교회들 (리디머 이스트, 리디머 웨스트, 리디머 다운타운, 리디머 링컨스퀘어)로 활발한 특성화를 이루고 있다.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교수로 있었기에, 그가 자연스럽게 당대 최고의 박식하면서도 변증적인 설교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현대정신을 정확히 꿰뚫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기에, 팀 켈러 목사의 저서는 최고의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거의 대부분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목회한 지 20년이 되던 해에 2008년에 출판한 『하나님에 대한 이유들』 (Reason for God)이라는 책은, 뉴욕 타임즈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논픽션 서적으로는 7번째 판매순위를 올리고 있다.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그의 설교를 모방하였다가 구설 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미국 불티모어에 있는 한인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부임 설교에서부터 줄곧 표절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결국 그 교회 목회자가 사임을 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다. 팀 켈러의 목회와 설교를 연구한 저서들과 박사학위 논문들도 여러 편 나올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켈러 목사는 뉴욕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 전문인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었다. ‘뉴욕’들은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예술인들이 많은데, 잘못된 사상들과 문화의 영향 아래서 왜곡된 사상을 갖고 있다.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성도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혼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다. 그래서 리디머 교회에서는 결혼 준비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이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주로 중국계와 한국계 2세대, 3세대들이다.

2017년 7월 현장 목회에서 은퇴한 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젊은 목회자들의 멘토로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2020년 6월부터 웨장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뉴욕 리디머 교회의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놀라운 감동을 준다. 매 주일 뉴욕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축복을 기원하는 부분들이 감동을 주고 있는데, 직장에서의 성공, 돈, 섹스, 권력들은 무상일 뿐이며, 결코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음을 강력하게 깨우치는 메시지를 주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으로 만족을 누리려 하는 자들은 무상을 숭배하게 된다. 켈러의 설교와 저서들은 정통 개혁신앙과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들이다. 켈러는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비평하지만, 어느 당에도 소속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한다. 팀 켈러의 사역에서 핵심을 이루는 강조점들은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는 복음의 교리들이다. 그는 인간의 전적부패, 값없이 주시는 은혜, 대속적 속죄를 강조하고 있다. 켈러는 전통적인 종교를 탈피하라고 촉구한다. 규칙과 규정에 매이고, 예식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공고를 세우고자하는 것

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하나님도 없고, 구원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비종교인”이 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접근방법은 “복음 중심”이다. 뉴욕의 현대 문화 속에서 담겨있는 반기독교 정서, 서구 유럽 사상에 깊이 스며있는 회의론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그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복음”이다: 우리들 속을 살펴보면 불수록, 우리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하며 결함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감히 소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복음중심의 이해가 대표적으로 담겨있는 책이 탕자의 비유를 해석한 『탕자의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재발견』 (The Prodigal God)이다. 켈러가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은 영국 옥스퍼드의 영문학 교수 루이스 (C.S. Lewis), 코넬리우스 반틸, 존 프레임, 존 스토틀, 알빈 플랜팅가 등이다.

켈러는 과거에 뉴욕에서 일어났던 사회복음운동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다. 그들은 진보적인 자유와 정치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죄의 심각성과 죄성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을 약화시켰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친 바를 더욱더 실천해야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관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뉴욕에서 가장 민감한 성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성경에 위배된다고 가르친다. 낙태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조항들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였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중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 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팀 켈러의 고백 “부활 반신반의했던 것 깨달아...더 큰 믿음 구해”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인 팀 켈러 목사가 암투병 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한 단계 더욱 성숙해졌던 과정을 고백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팀 켈러 목사는 지난해 4월 췌장암 선고를 받기 전, 크리스천포스트와 나는 인터뷰에서 그의 저서 “두려움의 시대에 희망(Hope in Times of Fear):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의 원고를 집필하던 중, 기독교의 부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5월, 당시 70세이던 그는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켈러 목사는 인터뷰에서 “당신이 아주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부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부활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가? 반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2016년 출간된 “감춰진

크리스마스(Hidden Christmas)”의 설명서로 기획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자신의 암 선고 이후에 “그 책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켈러는 회상했다.

이후에 그는 SNS를 통해 “부활에 관한 책을 쓰고 있으며, 내가 죽을 것이라고 반쯤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나는 돌아가서 깨달았다. 나도 부활에 대해 절반 밖에 믿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믿는 차원이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믿는 것 말이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활에 대한 더 크고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켈러 목사는 이후 몇 달 간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들여다 보았고 “지적 및 정서적 작업”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로지 기도와 성경에 몰두하며,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고 고백했다.



팀 켈러 목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켈러 목사는 “추상적인 믿음을 내 마음 속으로 가져가고, 경험적으로 알고, 확신을 키우고, 효과를 얻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진리에 빠져들고, 성령께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현실이 되도록 구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거부하며 살고 있음을 지적했

분의 영광과 은총의 빛으로 점점 이상하리만치 어두워진다”고 전했다.

켈러는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해 “직장이나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작은 죽음 속에서 연습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해야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을 가져다가 당신의 마음에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위로가 되신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당신의 구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책 ‘두려움의 시대의 희망’에서도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을 전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을 통해 치유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며 “부활은 이러한 회복(renewal)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고 부당한 일에 맞서 지금 일해야 한다는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 오픈도어즈 CEO “서방이 기독교인 박해에 목소리 낼 책임 있어”

### “부활을 믿는 박해지역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야”

오픈도어즈(Open Doors) 미국 CEO인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라”고 요청했다.

커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 기독교 매체 ‘페이스와이어(FW)’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신자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도어즈의 활동과 관련,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부활절에 이러한 영적 단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수께서 떠나시며 기도하신 것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되게 하소서’이다. 이는 매우 큰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분열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갈라 놓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할 온갖 이견이 있지만,



오픈도어즈 미국 CEO 데이비드 커리 ©Open Doors USA

예수님의 죽음과 삶, 그의 죽으심과 부활 하심은 교회의 연합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커리는 박해자들이 기독교인을 고립

자가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장소가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2019년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일요일에 가톨릭 교회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인도인 11명을 포함, 258명이 사망했다.

당시 콜롬보 대주교인 말콤 란지스(Malcolm Ranjith) 추기경은 테러에 대한 사전 정보를 무시한 정부 관리들의 체포를 촉구했다.

페이스와이어는 서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신자들이 겪는 박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교회들이 최근 들어 ‘편협함의 증가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커리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는 불편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대가를 계수했고,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강한 교회, 즐거운 교회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권면했다.

김유진 기자

## 테네시주 하원, “성경은 공식 주정부 서적” 결의안 통과



성경을 든 교인. ©FLICKR CREATIVE COMMONS/CHRIS YARZAB.

성경을 미국 테네시 주의 ‘공식적인 주정부 서적(official state book)’으로 채택하는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하원을 통과해 주 상원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 뉴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이 결의안이 하원에서 55대 28의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성경이 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기록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테네시 주립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에 따르면, 20세기 이전에는 출생, 결혼, 사망에 대한 수백 개의 주요 기록이 각 가정에 비치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 성경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테네시 주의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다”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조차도 성경이 테네

시 주에 끼친 경제적 영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경이 테네시 주가 채택하는 나무와 곤충인 ‘톨립 포플러’와 ‘꿀벌’만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테네시주 출판사인 ‘블루북(Blue Book)’에 따르면, 톨립 포플러는 주 전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개척자들에게 의해 필요 농사 시설을 짓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의안은 성경이 테네시 주 전역의 가정에서 발견되며, 가족의 역사 기록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꿀벌이 테네시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한다’며 “이는 테네시에서 성경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사업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up \$2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만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프랭클린 그레함 “지난 몇 달 동안 지옥의 모든 악마가 풀려났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BGEA

## 아칸소 주지사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 법안 서명위해 기도 요청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가 성별 위화감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의 호르몬 치료와 외과적 절단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도록 기도하자고 촉구했다.

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방송된 'Pray Vote Stand' 방송에서 토니 퍼킨스 가족연구위원회 회장과 함께 출연해 “지난 몇 달 동안 지옥의 모든 악마가 풀려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좋은 입법안에 서명하고자 하는 선출 공무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할 때”라며 아칸소주에서 발의된 ‘실험에서 청소년 구하기’(Save Adolescents From Experimentation) 법안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아이들에게 소년이나 소녀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사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여러분에게 약을 주거나 수술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은 사악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레함 목사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좌과 들보다 크게 목소리를 높이라고 조언하면서 “그 분(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분이 우리에게서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바란다. 오늘날 사회에 닥치고 있는 악의 쓰나미에 맞서 싸우자”라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미국이 도덕적 자유 낙하 상태에 있으며 그 속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교회가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레함 목사는 특히 아칸소 주지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 미국인 64% “캔슬 컬처, 개인의 자유 위협해”



©Andre Hunter / Unsplash

미국의 한 연구에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캔슬 컬처(Cancel Culture)가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답했다.

2일 기독교일보 영문판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의 미국 정치연구센터(Harvard CAPS)와 해리스 설문(Harris Poll)은 최근 진행했던 설문 조사 결과를 미국의 정치 매체인 '더 힐'(The Hill)을 통해 발표했다.

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의 64%는 “점점 더 커지는 캔슬 컬처로 인해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캔슬 컬처가 “큰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36%로 가장 많았고, “보통의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32%,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응답자는 20%,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로 나타났다.

또 미국인의 54%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답했으나,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오늘날 캔슬 컬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자회사인 ‘메리엄 웹스터(Merriam Webster)’사는 캔슬 컬처를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며, 대량 취소에 참여하는 관행 또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영국 ITV의 시사 프로그램 ‘굿모닝 브리튼’ 사회자 피어스 모건은 해리 왕손의 부인인 메건 마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자진 하차했다. 당

시 영국 내 그를 비난하는 청원은 하루 만에 4만 1천여 건에 달했다.

미국 CBS 프로그램인 ‘더 토크’ 진행자이며, 모건의 친구인 샤론 오스본(Sharon Osbourne)은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의견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는다”며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자 10일, 프로그램 공동 진행자인 셰릴 언더우드도 모건의 발언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옹호한 오스본과도 격론을 벌였다. 결국 다음날 CBS 사는 오스본에 대한 퇴출 결정을 발표했다.

이 사건 이후 모건은 캔슬 컬처의 악영향을 비판하며 근절을 요구했다. 그는 데일리메일(Daily Mail)에 실은 기고글에서 “우리 문화를 죽이기 전에 취소 문화를 취소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마크 펜(Mark Penn)은 조사 결과를 우려하며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진짜 의견을 표현하면 해고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끔찍한 사실”이라며 “움직임을 바로 잡기보다는 오히려 소셜 미디어 기업의 검열에 동조하고, 이는 국가적인 문제로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1,945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유진 기자

# 교회 소식

### LA 지역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0.1만 2세를 영입하며, 이민이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증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코너)  
T. (213) 386-2233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해 왼쪽)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 LA동부, 라스베가스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 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도회 오후 9:00  
침례교회 사람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이드) (마지못함) 오후 8:0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위클리프, 성경 번역 보호하고  
가속화하는 기술 제공**



번역된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 © 위클리프성경번역협회

세계적 성경 번역 단체 중 하나인 위클리프협회(Wycliffe Associates)가 성경 번역을 보호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번역가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성경 번역 발전을 위해 모국어 성경 번역가들과 지역 교회들이 협력하는 이 단체는 최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지역에 사는 모국어 성경 번역자들을 위한 성경 번역 가속 키트(BTAKs) 개발을 발표했다.

2천5백 불 상당의 각 키트는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가 내장되어 있으며 각 언어 그룹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성경 번역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위클리프에 따르면 한 언어 그룹이 BTAK를 받고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 할 때 배운 내용을 해당 지역의 다른 언어 그룹에 전달한다.

지금까지 이 그룹은 793개 언어 커뮤니티를 위해 48개국에 BTAK 549개를 설치했다.

위클리프협회 임시 대표 겸 CEO인 팀 네우는 특히 외딴 지역에서 증가하는 박해 속에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리스트가 당신을 발견해 장비가 압수되거나 파괴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번역 작업물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보호된다"라며 "정글, 열대 우림, 산악 지역과 같은 외딴 저개발 지역에서는 종이로 쓴 모든 것이 실제로 흑독한 낫습, 습기, 홍수, 심지어

는 곤충의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TAK는 성경 번역에 매일 투자 된 모든 작업을 보호한다"라고 했다. 이 키트는 이미 삶을 변화시키고 성경 번역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외딴 지역이 1만2천 곳이 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1백개 이상의 언어 그룹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비행기나 배로만 접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사위(Sawi) 부족은 위클리프협회로부터 이 키트를 받고 모국어로 구약 성경 번역을 거의 마쳤다.

네우 대표는 "이들은 한때 식인종 부족이었다. 이들은 부족 전쟁에서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랐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며 "BTAK가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만하게 체험하는 데 여전히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했다.

최근 위클리프협회는 2020년 다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성경 번역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신약 번역은 141개 언어로, 구약 번역은 8개 언어로 완료됐다.

또한 위클리프협회는 기술의 힘을 활용해 성경 번역을 가속화하여 모국어 번역가가 가상 성경 번역 이벤트에 원격으로 참여하고 번역과 확인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협력 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에 따르면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의 숫자는 1990년 351개에서 2020년 700개로 지난 30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강혜진 기자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JCOCC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쁨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 F.(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밤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절미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박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리제물 30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교육부 후원예배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 금요일예배 오전 11시 (금요일주중예배: 오후 7:30)  
195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5 EM: 오후 1:30  
(F.(818)393-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이동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라,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경대담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s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홍콩인들 “법치와 기본권 위협받을 때  
저항할 것”**



지난해 홍콩에서 열렸던 대규모 시위 모습 ©Studio Incendo

아시아 민주주의 관련 소식을 전하는 웹페이지 '자유, 존엄, 그리고 아시아'가 홍콩의 노동운동가인 아포 램웅 씨와의 인터뷰를 최근 소개했다. '자유, 존엄, 그리고 아시아'는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안이 3월 30일 중국 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그 동안 홍콩 민주화 투쟁의 핵심 사항이었던 '직접선거 실현'이 영원해 보인다"며 "노동자와 사회운동가로 평생을 살아온 아포 램웅 선생을 모시고 홍콩의 최근 시국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했다.

램웅 씨는 "때때로 중국과 홍콩 정부는 홍콩 기본법에 의해 보장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비판자와 지지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고 강제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등의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젊은 세대는 홍콩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를 위한 투쟁에 가까이 참여하고 있다"며 "법치와 기본권은 홍콩에 있어서는 귀중한 가치이며, 홍콩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이 침해되거나 위협받고 있을 때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홍콩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새로운 무기는 신 국가보안법(NSL 2020)"

이라며 "이 법은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오싹하게 만들었다. 거리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거나 잔인하게 진압되었지만, 법정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와 비정부가구들이 해산되고 있고, 반체제 인사들은 홍콩을 떠나 망명하거나 기소되고 있다. 언론 검열 내지는 자체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현상은 홍콩 시민사회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적대적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들은 한국, 폴란드, 대만의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공적 영역이나 언더 그라운드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유지했는지 배운다"며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은 좀 더 폐쇄적인 시국 토론과 상황 분석과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홍콩 시민사회는 지난 2년 동안 국제 네트워크들의 지원으로 많은 힘을 얻었다. 앞으로 공식 국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NGO 차원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확대, 심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 수잔 솔티 여사 “문 대통령, 북한주민과 탈북민 위해 아무것도 안 해”

북한자유연합 대표 수잔 솔티 여사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기고를 3월 31일 조선일보에 기고했다.

특히 ‘대통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기고에서 그는 지난해 11월 2일 전직 미국 관리 20명이 탈북민 강제복송 중지 요청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발송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수잔 솔티 대표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는 중국 수용 시설에 억류돼 있는 북한 여성, 남성,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긴급히 도와주실 것을 간청했다”며 “저는 북한 난민 위기가 시작된 뒤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그랬듯 무언가 해주실 것을 호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솔티 대표는 “저는 걱정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국경을 닫아 걸고 중국이 강제 복송하고 싶어하는 탈북민들을 받지 않으려 하는 이 시기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라고 말씀드렸다”며 “인도주의적 자비심을 보이고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도록 허락해 준다면 중국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시진핑 중국 주석을 설득할 큰 기회였다. 하지만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 호소의 뒤를 이어 11월 2일에는 리처드 닉슨 이후 모든 미 대통령 행정부를 대표하는 전직 미 정부 관리 20명이 연서명한 편지를 대통령님께 보냈다”며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현재 중국에 억류된 북한 여성, 남성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요청하고 그들이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청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솔티 여사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하실 것을 믿었기에, 작년 11월 2일 작성된 이 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2020년 9월 이후 중국 수용 시설에 갇혀 있던 젊고 아름다운 북한 여성 두 명이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들은 요청했던 한국이 아닌, 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들을 학대한 자들의 손아귀에 던져졌다. 중국 경찰은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두 여성을 처음 그들을 사들인 중국인들에게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했던 사람들의 손에 다시 넘겨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솔티 여사는 “대통령님은 이 두 여인과 수백 명의 다른 이들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중국에 여전히 갇혀 있는 탈북민들도 계속 외면하실 것인가”라며 “간헐 탈북민 중에는 기독교인들, 한국의 가족과 상봉하려는 이들도 있다.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 이들은 처형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솔티 여사는 “이전 편지에 썼듯이, 대통령님은 (6·25전쟁 때) 당신의 가족들이 구출됐던 덕에 스스로 인생 행로를 선택할 기회를 가졌고, 번영하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위인 대통령에 선출됐다”며 “이제 당신은 탈북민들의 목숨을 보호하고, 그들이 당신이 누렸던 것과 같은 기회를 갖도록 도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수잔 솔티 여사는 “아직 시간이 있다. 제발 행동해 달라”며 “대통령님은 하나원에 이들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많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대용 기자

# 탈트랜스젠더의 고백...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다”



다시 여자로 돌아온 이호진 양의 모습(좌), 이호진 양이 5년간 남성으로 살던 당시 모습(우). ©이호진 양 제공

5년간 남성으로 살았던 탈트랜스젠더 이호진 전도사가 “진정으로 성소수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도사는 30일 ‘의학적 울바름-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고찰’을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지난날의 고통을 전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관심을 호소했다.

이 전도사는 “직접 온몸으로 성전환을 경험한 사람이다. 경험이 좋았다면 이곳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7살 때 성폭행을 당한 후부터 남성 혐오가 생겼다. 성폭행을 당할 때 거부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혐오도 생기게 되었다”며 “내가 남자였으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거란 왜곡된 판단으로 졸군 남성이 되는 것을 갈망했고, 결국 트랜스젠더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 전도사는 “저는 단돈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성정체성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너무 쉽게 발급받았다. 20만 원과 맞바꾼 정신과 진단서를 들고 가정의학과병원에서 남성호르몬을 투여하며, 단 1년 만에 완벽한 남성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며 “누가 봐도 남자의 외모를 가졌지만, 제 정신과 속의 장기들은 병

들어 갔다”고 전했다. 그는 “완벽하게 성전환을 하려면 성염색체를 바꿔야만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자의 몸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도, 역시 아무도 그 심각성을 말해주지 않았다. 검사 결과 간수치는 여성의 기준치를 넘었고, 몸이 항상 피곤했으며, 생각은 점점 단순해지면서 감정이 없는 로봇 같아졌다”고 했다.

이어 “남성호르몬으로 인해 얼굴과 등에 여드름이 심각하게 생겨났고, 여드름 때문에 독한 피부과 약도 함께 먹게 되자 간수치는 점점 높아졌다. 그러다 생식기에서 부정출혈까지 하게 되었다. 생식기 쪽에 통증도 생겼다”고 했다.

또 “정신적인 영향은 더 엄청났다. 남성 호르몬으로 겉모습이 남성화가 되면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게 될 줄 알았지만, 제 분리장애가 더 악화되어갔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다행히 가슴절제술과 자궁적출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성호르몬으로 목소리가 남성화되어, 여자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며 “수염도 레이저 제모 시술을 수십 번 해야 했고, 아직도 저녁이면 거친 남성형 수염이 자란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성소수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들이 건강하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경호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일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AM, 11AM, and 2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11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한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점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을 살리는 생애공제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복음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생령 성령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사랑의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 오전 9:00am  
2부예배 오전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세백예배 주일 11:00am  
세백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례예배 : 오후 7시  
세백기도회 : 오전 6:00(화-금)  
셀모일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중보기도 오전 9:00(목)

세백예배 오전 6:00(화-토)

**김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말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에 오전 11:30(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개강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1 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초대교회사	Daniel Min
Tue	7:30 PM - 9:30 PM	데살로니가후서,고린도전서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영성 신학	Elijah Kim
Thu	7:30 PM - 9:30 PM	선교신학2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	Jong Y Kim
Sat	7:30 PM - 9:30 PM	시편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부활 주일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 아닌 지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또 믿고 있다면 어느 정도 확신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유혹이 오면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디어 내기도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마치못해서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때우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의 가족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막상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

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부활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고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 이래 인류역사에 가장 큰 3가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계획을 이루시려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4월 4일)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교회 성도들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간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다가 이번 부활절에는 1년 만에 교회당에 모여 예수님 부활을 기리며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절로 번역되는 영어 Easter 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인 Eastre와 Ostara가 합성된 말로 새벽과 봄의 여신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벽은 어둠을 물리치며 봄은 새 생명이 긴 겨울을 이기고 나온다는 의미에서 부활절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설화, 전설, 신화, 실존주의적 해석이 아닌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증언하면서 그가 부활의 몸으로 10차례 가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 도사의 두 제자, 게바와 열두 제자들, 오백여 형제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바울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타종교의 창시자들과 달리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죽은 이가 아닌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두려움과 절망의 벽에 에워싸여 아파하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성령 충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절망에 신음하는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지금 하늘 시민으로 사는 기쁨



신용환 목사  
나성한미교회

최근에 <미국 제 93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작>에 한국 이민자 2세 감독인 정이삭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미나리>라는 영화가 수상 후보에 올라 미국과 한국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가장 미국적인 이야기 American Dream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누구나 겪었을 법한 우리 이민자들의 가족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동적인 스토리 만큼이나 이슈가 되었던 한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어느 나라 영화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이 영화의 스토리 대부분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의 땅과 기회의 나라인 미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 이민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에게 <Asian-American>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글자속에는 <I am>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 살면서 이중국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이중 시민, 이중 국적자로 사는 삶이 무엇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며 로마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살것인지? 아니면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빌 3:20). 빌립보라는 도시는 <소 로마: 로마의 복사판이요 축소판, 제 2의 로마, 작은 로마, 로마의 빛>과 같은 로마의 식민도

시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황제는 빌립보에 많은 로마 군인들, 제대 군인들,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을 거주 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만들고, 그곳 시민들을 로마의 시민들로 특권을 부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대할수 없는 시민의 대우와 특권이 있었습니다(행 22:28-29). 바울은 이땅에 소망을 두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빌 3:17-19). 바울이 감정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번 말했고, 눈물로써 누누히 말하면서 “이땅에는 그리 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땅의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미안하지만 멸망입니다. 이땅의 시민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 땅은 결국에는 멸망한다.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시민 곧 로마의 시민들이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맺는 몇가지 행동들을 예로써 보여줍니다(빌 3:19). 바울을 3가지로 지적합니다. (1)베로 신을 삼지 말라. (2) 부끄러운 것을 영광인줄로 착각하지 말라. (3) 땅의 일에만 너무 골몰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 당시의 빌립보에 있는 로마 시민들은 매일 같이 부어라, 마셔라, 흥청 망청 탐욕과 탐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유대주의자도 되지 말고, 식욕과 탐욕을 즐기는 쾌락주의자도 되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로마주의자도 되지 말라. 오직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진짜 국적은 저 하늘입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 사는 삶은 지금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땅의 시민됨을 자랑하는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땅을 바라보며 디디고 살지라도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디디며 살아야합니다. 우리는 이땅에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이루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할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킹덤 드림: Kingdom Dream>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살고 있고 하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일제의 기독교 학교에 대한 억압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일제는 기독교회가 그들의 교리를 내세워 신사참배를 반대 할 것이라 예견하고, 이 문제를 당장 기독교와 정면충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식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다시 말해서 신사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국민 된 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로 수행하는 종교성이 없는 애국 행위라는 억지 주장을 하였다. 그들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렇다.

1.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이며, 예배 행위가 아니고 조상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일 뿐이다. 2.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지적인 육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천황의 신민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함께 신사참배를 통하여 천황에 대한 경의를 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신사참배는 자유에 맡길 뿐이고 강제하

는 것은 아니다.

일제가 각 급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 배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독교 학교를 굴복시키기 위한 음모였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들 학교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어 식민지 교육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었다.

1932년 일제는 평양 서기산(瑞氣山)에서 열린 춘계 황령제(春季皇靈祭)를 계기로 기독교 학교 공략에 나섰다. 평양에 있는 기독교계 학교에 참배를 강요했을 때, 선교사들이나 교사들은 우상숭배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에 대해 일제는 간교한 수단으로 그렇다면 제사 행위에는 참석하지 말고, 제사 후 국민의례에만 참석하라는 타협안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송실전문, 송실중학, 송의여중학교가 이 예식에 참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자연히 이 문제는 교회의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1933년 장로회 총회에서는 전국의 여러 노회로부터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문기가 있었다. 총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재명(車載明), 유억겸(兪億兼), 마펫 등의 교섭위원을 내세워 당국과 협의를 원했으나, 일제는 핑계를 대며 교회와 정면 대결을 회피하면서, 각 급 학교의 신사참배 문제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학생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청원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일단 학교의 신사참배 문제는 총회의 차원이 아닌 학

교 당국과 일제와의 문제로 좁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제가 아직 교회와 정면 대결을 피하고 학교를 굴복시킨 후 교회에 손을 대려고 하는 불순한 작전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마침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대만 총독을 지냈던 안무직부(安武直夫)를 평남지사로 임명하였다. 그는 1935년 11월 중학교 이상 도내 공·사립학교 교장회의를 도청에 소집하면서, 회의 전에 모든 교장들은 평양 신사에 참배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송실중학교 교장 맥쿤(G.S.McCune)과 송의여중 교장 스눅(V.L.Snook), 장로교가 연합하여 세운 송인상업학교장 김항복(金恒福), 그리고 안식교 계통인 순안의 명(義明)학교장 리(H.M.Lee)는 신앙 양심상 참배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당국은 세 사람에게 두달의 여유를 주면서 그 때까지 응하지 않으면 파면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북장로교 선교사들 간에 이견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신사문제를 근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홀드크래프트(J.G.Holdcraft)에게 신사의 본질, 의의, 목적 등에 대해 자세히 연구, 보고하게 하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나서 1937년 3월 10일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 “신사에는 종교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참배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교부는 이 보고서를 각 선교사에게 보내고 신사참배

불가 결론을 확인하였다.

선교회는 평양 시내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교회의 입장을 전하자 한국 교회 목사들도 이에 동조하고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절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맥쿤과 스눅 두 교장은 파면되어 결국 미국으로 추방당했다. 다른 교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지만 그들 역시 신사참배를 거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1937년 이들 학교는 마침내 폐교 신청을 하고 말았다. 송실전문은 이종만(李鍾萬)에게 넘어가 대동공업전문 학교가 되었고, 중학교는 당국이 접수하여 제3공립중학교가 되는 비운을 겪어야만 하였다.

북장로교계 학교의 폐교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서울의 세브란스의 전, 정신, 대구의 계성, 신명, 선천의 신성, 보성, 재령의 명신, 강계의 영실학교 등이 폐교했고, 서울의 연희전문도 1941년에 이르러 총독부로부터 넘어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남장로교회는 북장로교회보다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하였다. 그들은 신사참배 문제는 유일신론과 다신론간의 투쟁이라고 단정하고 여러 회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문제는 본국 교회의 총무 풀톤(C.D.Fulton)이 1937년 한국을 방문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난 선교사 2세이며 일본어, 관습, 종교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졌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없이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신사문제에 대해 정의하였다.

첫째, [일본] 정부가 정의하는

종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와 신도(神道) 사이의 어떤 차이도 찾을 수 없다. 셋째, 신사참배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 요소가 많다. 넷째, 투옥과 고문,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아래서 표현되는 한국인들의 의견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따라 남장로교회는 신사참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1937년 9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 당국은 모든 학교에 대해 중국에 출정한 일본군의 승리를 천조대신(天照大神)에게 기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본국 교회의 훈령과 또 선교사들의 결의에 따라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각 급 학교를 폐쇄하였다.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의 개화와 발전을 위해 고난 속에서 세우고 가꾸어 왔던 이 모든 학교들이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의 희생물로 폐교당하는 현실 앞에 선교사들도, 교사들도, 학생들도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장로교 계열 학교들은 고난의 세월이 가고 해방이 왔을 때 모두 다시 문을 열고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였으니, 역사는 신사에 참배하면서 학교를 계속했던 친일적 학교들과,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고 폐교했던 학교 중 어느 쪽이 옳았는가를 웅변으로 증언하고 있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황민화 교육을 계속했던 학교들은 민족교회와 역사 앞에 무엇을 남겼을까?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일티슈  
주말제전  
공미라고  
메그린8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보다 저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의 의미

누가복음 21:1-4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 보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렘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돈 주머니를 왼손으로 추켜들고 오른손을 주머니 안에 넣고 휘휘 저으면서 돈이 많이 있음을 과시하고 그 중에 얼마를 집어 연보 궤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금화도 은전도 아닌 동전, 구리로 만든 단위가 가장 낮은 두 렘돈을 넣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아주 다소곳하게 얼굴 들기도 어려워 민망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과부는 가치 단위 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헌금 가치의 기준이 금액의 단위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부의 과거가 어떤 생활을 해왔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이 가난한 과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것을 보아 이 과부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지만 굶어 죽을지에 대한 걱정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남은 생활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도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싸고 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물 속에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지극정성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과,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자기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부의 믿음의 정성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드린 것으로 평가되신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델라스 지역으로 선교를 갔을 때 초대받아 간 곳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초대한 목사님은 하루에 2천불 이상을 버신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일정도 일을 하면 4만 불을 버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60세가 넘으셨습니다.

이 목사님 내외가 한 3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두 분이서 이백 불을 가지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이 내외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어디 잘만한 처소도 구하지 못해서 그곳 예배당 긴 의자에서 잠을 자고 교회 화장실에서 씻으며 기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감동이 오기를 본문 말씀인 ‘가난한 과부의 두 렘돈’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 과부는 모든 것을 드리고 굶어 죽었을까? 아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좋은 조건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와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의논했더니 남편은 부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그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설교가 생각이 났으면서 가진 돈 이백 불을 전부 감사헌금으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백 불은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백 불씩 헌금을 하니 교회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도 알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냐고 물으니 교회에서 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대단해서 아버지 집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심방을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 “저희들은 집이 없습니다. 이민을 때 가지고 온 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했더니 금세 인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있으면 안될 것 같은 표정을 보고는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또 밤을 맞이합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

다시 그 교회로 갔는데 다행히 문이 잠겨있지 않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답니다. 하룻밤 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신발 수리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며 서투른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가게주인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며 한 달에 돈 칠백 불을 주었는데 그 당시 방세는 천 이백 불을 줬어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에서 기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한국인 식당에 가서 일해주고 사백 불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항상 일을 하면서 찬양을 했고 일에 열심을 다하니 4년이 지난 뒤에는 일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다른 곳으로 돈을 벌러 가야하니 이 가게를 맡아 운영하라고 한 달에 얼마씩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한 달에 4일정도만 일하면 보내줄 돈을 다 마련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집사님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원들도 둘 정도로 가게가 번창해지자 부인이 신학교를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안수를 받았습다. 그리고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세계선교를 위해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재물들을 사용하면서 남미 여러나라, 멕시코나 미개한 나라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인 축구회를 만들고 그곳에 운영자금으로 매년 11만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을 모시기 위해서 구입한 집이라고 하며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시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돈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라고 가지고 돈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하나님도 인색해지셨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모두 드렸더니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해야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임하실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는 만큼 더 많은 물질의 발전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욕심이 원하는 대로 세상 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기대는 멀어지고 말 것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조건으로 살리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신에게 후하게 살다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어리석음에 머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 렘돈으로 가장 많이 드린 정성이라는 예수님의 평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펙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

###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고막염,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 얼굴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권,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럽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플러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땀기고, 무릎통증
- 팔꿈치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때때는 숙면계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처음 본 예수님 알아보았을까?

[위대한 이단자들 1] 바울 1: 이단의 괴수

바울(Paul, 1-62/64)은 이단의 괴수(행 24:5)였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는 이단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본래 유대교 바리새학과 엘리트 신학도였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 회심을 했다. 그 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독교 교리를 확립했다.

바울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율법주의와 지성주의 신령과를 견제하면서, 기독교 정통 교리를 체계화했다.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 바울은 예수가 유대인이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예수 구원의 복음 진리 전파에 헌신했다.

그는 죽은 예수를 상품화한 종교 철학자가 아니었다. 대속의 희생을 담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였다.

바울 메시지의 핵심은 '나무에 달려 죽은 구원자 예수'였다. 유대인들은 신명기(21:23) 기록에 따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며,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바울은 이 개념을 뒤집어 엮었다. 인류의 구원자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렇다. 신명기, 이 법전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저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바로 그 분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다.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구원자 예수'라는 안티테제를 내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다.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예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바로 그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화목제물, 그리스도라고 역설했다(갈 3:1).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의 핵심과 대립점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유럽, 북미, 대양주 주류 기독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신학을 받아들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체계화한 복음을 '왕따'시켜 왔다. 그들은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무차별주의를 지향한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종 기독교는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한 정통 신앙인을 '근본주의자'라고 폄하한다. 바울의 정통 신학을 사실상 '이단' 사상으로 여기며,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교'라고 비난한다.

바울이 예수를 유대 민족이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역시 주장하여 예수가 창출한 생명(bios)문화 공동체운동을 결길로 오도했다고 본다.

기독교의 핵심은 '나무에 달려 죽은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원수 사랑과 윤리의 모범인 예수'이며, 예수 신앙은 자기의 욕망을 소멸시키고 타인을 위한 삶에서 자기를 재구축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바울은 이단 판별이라는 혼란스러운 사안을 두고 고심하고 씨름하는 오늘날 신학자들을 향하여 '나무에 달려 죽은 구원자 예수'를 각인시킨다. 교회를 향하여 '양코 없는 전방' 같은 기독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한다.

역사적 기독교가 고백한 정통 신앙을 따라 예수 복음전파에 전심 전력하는 전도자들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라고 한다. 교회를 향하여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신학을 지향하는 신종 기독교의 독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 1. 자랑스러운 유대인

바울은 자기의 태생적 유산을 명예롭게 생각했다.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베냐민



영화 속 사도 바울.



사도바울이 변화되었던 다마스쿠스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 ©FIM 국제선교회 제공

지파 족속, 바리새파 유대교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졌다(고후 11:21-22).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히브리인이었다. 양질의 감람유로 유명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태어났다. 8 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랐으며, 율법에 비추어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예수신앙 운동 박해에 열성적인 것도 동족 유대인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이었다(빌 3:4-5).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바울은 부모와 함께 터키 동남쪽 다스에 끌려갔다. 흩어진 유대인 이민자, 곧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바울이 자라고 청소년기를 보낸 제2의 고향 다스에는 흑염소들이 뛰놀고 마(麻)와 옥수수와 포도가 자라고 있었다.

바울은 회심 전 막노동에 대해 유한계급 숙물적 인식을 과시한 적이 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막노동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자신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고(고전 9:19), 남을 높이려고 자기를 낮추었다(고후 11:7)고 말했다.

바울은 평안한 가정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 그가 받은 교육은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였다. 고역의 교육비는 부모가 부담한 것 같다.

바울은 높은 수준의 비평적 사고 훈련을 받고 철학 지식을 쌓았다. 신약성경 바울서신들은 바울의 학문적 통찰력, 논리력, 비평력, 종합력, 창의력, 수사력, 문학적 소양, 언어능력,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진지한 성찰, 설득력 있는 표현 방법을 담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바울이 받은 양질의 교육의 열매이다.

바울은 구약성경 그리스어 번역본에 익숙했다. 비범한 능력으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며 총

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바울의 서신들은 구약성경 본문을 90회 가량 인용한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이 언급하는 예수의 부활은 보통 유대인의 일상 대화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가 성경에 통달하고 회당 예배와 가정교육을 거쳐 부활을 믿는 돈독한 바리새파 신앙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민족적 우월감과 자존감의 근거로 삼았다.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금기 음식을 먹지 않았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스 철학과 스토아주의 영향 아래에 있는 '다소 대학교'의 대부분 학생들과 달리, 유대주의를 선호했다. 유대교 율법 613개 조항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켰다.

바울은 정통과 유대인이 되려고 주후 15년경 예루살렘으로 갔다. 갓 청년기에 들어설 무렵이었다. 먼 길을 걸어, 유월절 순례객의 일원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한 달 보름이 넘는 동안 길리기가 평야의 진흙투성이 길과 시리아 관문을 통과하고 또 산길을 거쳐 가이사라를 지나 예루살렘에 당도했다. 유월절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거주민들보다 3배나 많았다. 속소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다. 베다니나 벳바게 근처 마을에서 묵거나 감람산 언덕에 장막을 쳤을 것이다.

바울은 바리새파 대학자 가말리엘 1세의 가르침을 따랐다(행 22:3). "무지한 자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바리새파 명제를 받아들이고, 성문화된 율법뿐 아니라 전통적 해석, 구전(口傳)되는 율법도 배웠다.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였다(갈 1:14).

동네훈들 사이에서 유대교 신봉 선두주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인문학적 배경, 성경지식, 전투적인 어

조, 도전정신, 경쟁심리 덕분에 성큼 바리새파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바리새파 핵심당원이 되기는 쉽지 않았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생들, 동기생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생활을 했다. 율법을 지키고, 엄격한 의식(儀式)을 따랐다.

결혼은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에게 의무사항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바리새파 엘리트가 될 수 없었다. 바울의 결혼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바울은 홀로 지냈다(고전 7:8).

바울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와 만나거나 마주쳤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서신들은 암시조차 하지 않는다. 만났어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다.

주후 30년 4월 7일 금요일,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일몰 때 죄수들의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었다. 벼동대는 동물들을 짊어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 도살된 가축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로마 군인들은 죄인들을 호송했다. 바리새파 최고 엘리트가 사형당하는 죄수들을 보려고 구경꾼 대열에 덩달아 끼어들 리 없다. 바울은 엘리트 체면을 구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만남은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었다. 제자들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가 약속된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화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선포했다.

사도들의 복음 메시지는 단순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

하고 가르쳤다(행 5:42). 많은 개종자들이 생겼다.

바울은 예수가 처형당한 뒤 '예수 신앙운동' 무리들을 대면했다. 그는 비로소 예수에 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때까지 바울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관망했다. 예수의 메시아 운동이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가말리엘 1세는 만약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들을 반대하는 행동이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행 5:38-39).

바울은 예수 신앙운동에 관용적이지 않았다. 그는 율법이 장악하고 지배하는 세상에 살았다. 율법과 계명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보장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게 한다고 믿었다(빌 3:6).

예수 신앙운동에 따르면, 구원에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행위는 허사가 되고 만다.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자처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경악했다. 자기를 구원의 시금석(마 10:32-33)이라고 하는 말에 놀랐다.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 신앙의 공존, 유대교와 기독교의 상생이 불가능함을 알았다. 그러나 율법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불가피했다. 그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왕이 등장하여 자기 민족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왕은 죄인들을 멸하고 이방인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메시아가 이미 세상에 왔다는 주장은 율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바리새파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단사상이었다.

바울은 호기심 많은 바리새파 엘리트 신학도였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이단자 예수에 관하여 역사가 요세푸스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는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바울은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고 생각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핍박할 구실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계시만 주어지면, 즉각 율법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기독교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정신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바울은 행동하는 유대교 엘리트였다. 예수 신앙운동을 박해했다.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다(갈 1:13).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신앙을 추종하는 남녀를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다(행 8:3). 눈에 띄는 대로 붙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갈 수 있는 권한도 받아냈다(행 9:1-2). (계속)

최덕성 지음, <위대한 이단자들: 종교개혁 500주년에 만나다(서울: 본문과현장사이, 2015)>, 제1장 1부.

최덕성 박사(브니엘신학교 총장, 교의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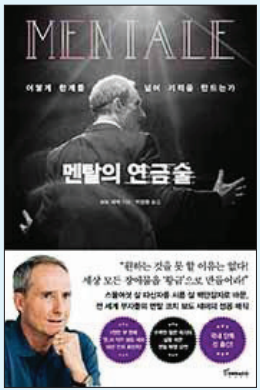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아브라함도 다윗도 도전하는 인생

# 한국교회, 향후 10년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에 응답하라

### 코로나19 이후 세상 급속히 바뀌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10년 후 더 큰 변화 올 것 코로나의 도전, 교회는 어떻게 극복할까



2030 축의 전환  
마우로 기엔 | 우진하 역  
리더스북 | 412쪽

**변화는  
코로나19에서  
끝나지 않는다!  
2030년,  
세계는 더  
심오하고 거대한  
질적 전환을  
맞이한다!**

“왜 2030년인가?”

“임계점이다. 그것은 이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해 폭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중심축이 이동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앞으로의 10년,

완전히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혼자만 뒤쳐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요즘 뉴스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한다. ‘동학개미나 ‘영끌’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주식으로 대학을 터뜨린 사람도 있고 주식에 중독되어 삶이 힘들어진 사람도 있다. 전자화폐에 투자했다고 말하고, 부동산 문제에 열을 올린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시대가 변했다. 학생들이 주식을 거래하고 가상화폐로 결제를 한다.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던 것 이상의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가기에는 이미 너무 격차가 크게 다가온다.

요즘 세상을 보며 떠오르는 단어는 ‘불확실성’이다. 자동차 회사인 독일 폴크스바겐이 전기차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배터리 전략 변경이다. 그 여파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3사 시가총액이 7조원 증발했다고 한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불확실성’이 가득할 때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 당장 내일의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한 시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될 세상을 앞서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2030 축의 전환》은 불확실한 시대를 앞서갈 힌트를 제공한다. 《2030 축의 전환》 저자는 마우로 F. 기엔으로,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현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30 축의 전환》은 10년 후 세계에 관한 그의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코로나19 이후로 세상이 급속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10년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변화는 축을 흐르는 변화가 될 것이다.

“이전에 유행했던 감염병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더 신속하게 도입되고 인구 고령화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훨씬 커지고 신형공업국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축이 전환될 만큼의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시대적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여러 변화들이 모여 서서히 진행된다.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그릇을 가득 채우는 법이다. 똑, 똑, 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계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넘쳐 흐르면 우리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2030 축의 전환》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 8가지를 제시한다.

#### 1장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출생률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은 출생률 하락이 미미하다. 그 결과 경제 및 지정학적 권력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

이주나 이민은 인구 노령화가 초래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구글과 인텔, 이베이, 페이스북, 그리고 링크드인과 테슬라 등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창업자 혹은 공동 창업자가 이민자 출신이다.

#### 2장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대는 약 23억 명에 달하는 밀레니얼 세대다. 그렇지만 이견 잘못된 생각이다. 실제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따로 있다. 지금 이들은 전 세계 자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그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이다. 이들은 바로 60세 이상 세대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할 것이다.

#### 3장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의 중산층 소비자 규모는 미국

과 유럽, 일본의 5배 이상이 되고, 2020년부터 계산하면 2배 이상 많아질 것이다. 전 세계의 주요 상품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기호가 아니라 신흥 중산층의 열망을 반영해 만들어질 것이다.

#### 4장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학부와 대학원 학위를 여성들이 받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의 40퍼센트 이상이 남편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할 것이다.

#### 5장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부는 도시 지역으로 집중된다. 전 세계 도시 지역 인구는 일주일당 평균 150만 명씩 늘고 있다. 도시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지구 전체 토지의 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5퍼센트가 거주한다. 2030년이 되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가 400개는 될 것이다.

#### 6장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기술적 변화는 세계의 경제와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기준이나 규범을 바꾸곤 한다. 물 없는 화장실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3D 프린터는 자원을 적게 낭비하게 해주고 운송 생태계까지 변화시킨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도움을 준다.

#### 7장 소유가 없는 세상

밀레니얼 세대는 공유 경제를 주장한다.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는 2007년 10월 시작되었다. 현재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에 달한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일정 비용을 내고 공유하며 나눠 쓰는 방식을 선호한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 역시 소유보다는 임대나 대여라는 개념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8장 너무 많은 화폐들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 중 일부를 정부 당국이 아닌 기업이나 심지어 개인용 컴퓨터가 발행할지도 모른다. 화폐를 찍어 발행하는 일은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데 디지털 암호 화폐는 비용과 수고가 줄어들었다. 현금을 주고받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자원을 절약하거나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관찰할 수는 있다. 만약 변화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미 시대에 뒤쳐져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저자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가 함께한다.”

가장 늦춰진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다. 구글과 인텔, 이베이, 페이스북은 이민자들이 만든 기업이다. 이민자의 특징은 도전 정신이 강하다는 것이다. 시대에 뒤쳐졌다고 낙심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다. 도전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도전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으로 이끄신다.

코로나19의 위기가 교회에 도전이 되었다. 우려와는 다르게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1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에 응답해야 한다. 모두 시대를 앞서가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눔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픽사베이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들카페 미사로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함께 대응합시다!

큰 변화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COVID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고 있는 이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COVID 확산을 늦추겠다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잊지 않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차례가 되었을 때 백신을 접종받는다면 바이러스를 함께 물리칠 수 있습니다.

[cdc.gov/coronavirus](https://www.cdc.gov/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